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넘어서

켄 카와시마 교수가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번 세미나는 발표와 토론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진행되었다. 본인의 개인적 경험과 연구과정에서 후리타의 권리 운동에 참가한 경험은 마이너리티의 규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제 1 차대전과 제 2 차대전 사이의 시기(Interwar period),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의 임시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결론적으로 인터워 시기의 조선인 재일 일용노동자들은 마이너리티라고 하기 보다는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하여 살아 갈 수 밖에 없었던 프롤레타리아였다. 일본의 마르크스, 경제학자 우노(宇野)는 노동력의 상품화를 강조했다. 노동력은 상품으로 매매되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전면적으로 확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노동과 자본의 교환과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다. 카와시마 교수는 이런 우노의 연구에서 영감을 받아 당시 일본의 만성적 불황과 식민지 조선인 노동자들을 노동력의 상품화와 관련 지어 연구했다.

식민지 시절 조선은 일본의 산미증산계획에 의해 농촌경제가 파탄 나고, 그에 따라 많은 실업문제가 생겼다. 반면 일본은 도시의 공업이 크게 발전하는 불균형 발전의 상황에 있었다. 따라서 조선의 농민들은 자신의 생활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공업에 종사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일본에서의 상황은, 제 1 차 세계대전 당시 경제 활황으로 인플레이션 발생했고 노동자들은 조합 형성 등 노동자 권리와 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전쟁 종식 후, 곧 불황이 찾아 오게 되었다. 이에 일본의 기업은 일본 노동자의 임금 상승 압력을 낮추고 값싼 인력을 찾기 위해, 조선인의 급료를 일본 노동자보다 약 30% 낮게 하는 조건으로 한국인 노동자를 사용했다. 그러나 극심한 불황기가 되자 공업계에서는 조선인 노동자를 먼저 해고되었다. 따라서 재일 조선인 노동자들은 토목 공사에 투입되는 일용 노동자로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였고 그나마 일거리도 충분하지 않는 이른바 “Gamble”을 해야만 했다. 당시 재일 조선인 일용 노동자들은 Indispensably Disposable Commodity 즉, 불가결한 가처분 상품으로써 노동력을 팔아야 했던 것이다. 불가결한 가처분의 개념은 상품화와 국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노동력을 팔 수 밖에 없는 상품에서의 불가결한 가처분이라는 “상품화”와 일본 내 노동시장을 지키기 위한 인종차별적 “국적”의 문제인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학자 푸코는 「생명정치」(Biopolitics)를 창안하면서 기관과 정부에 의해 모든 국민은 같은 위치에 있으며 힘에 의해 압도된다고 말했다. 또 「생(畵)」의 세가지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인종적 차이, 노동의 부족, 그리고 사회정책에 의한 경쟁의 가속화가 그 것이며, 이 세가지는 앞서 양 대전 간 시기 재일 조선인 일용노동자들이 겪었던 일, 즉 노동의 상품화와 연결된다.

당시 재일 조선인 노동자들이 불안정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건설 일용 노동을 주로 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제도적 네트워크 때문이었다. 1925 년~1937 년 사이 일본의 경제적 공황상태에 실업구제를 위해 설치된 UERP 는 한국인의 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노동수첩”을 요구하고, 한국인을 전문으로 하는 복지 단체- 상애회 등-에서만 노동수첩을 발행했다. 대표적

복지기관으로 들 수 있는 상애회는 경찰과 연계되어 결국 정부와 연관되어 있었고 거대한 건설 하도급회사의 인력 브로커, 조선인에 대한 부당 대우로 유명했다.

이렇게 당시 제일 조선인 노동자들은 사회의 구조적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할 수 밖에 없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는 단지 마이노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프롤레타리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Q&A

Q: 1920 년대는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시기였다. 일본에는 숙련공이 많았고 한국에는 미숙련공이 많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없었던 것 아닐까.

A: 실제로 일본의 작은 공장에서 20%정도의 조선인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수가 채 6 개월도 일하지 않고 그만 두었다. 앞에서 언급한 일자리를 중개하는 기관에서 증가하는 인원을 장부에 정리한 자료가 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사람들을 숙련공이나 미숙련공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내국인(일본인)과 조선인으로 나눈 것을 볼 수 있다. 다문화적인 구조를 가지면서 선별적으로 받아드리는 인종차별이 존재했다.

Q: 「Indispensably Disposable, 불가결한 가처분」이라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본 것인가. 국가의 관점인가 아니면 자본, 산업의 관점인가?

A: 자본의 관점이면서 국가의 관점이기도 하다. 노동력이 자본의 관점으로 볼 때 “불가결” 한 것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이윤율이 증가하게 된다. 또 역사의 레벨로 보면 노동이 부족했고 당시 국가와 산업과의 관계 등의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 관점의 indispensable 이기도 하다.